

공부 회복탄력성과 기말고사 역전 전략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벚꽃이 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 고등학교 교정은 대조적인 풍경으로 가득하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도 잠시뿐이며, 성적표라는 냉혹한 지표 앞에 좌절하는 학생과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속출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자책이 아니라 인지과학에 기반한 '공부 회복탄력성'의 재건이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서 기말고사 역전을 위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험 스트레스와 전두엽의 마비

실패의 본질은 의지 부족이나 지능의 한계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뇌 기능의 저하에 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과도한 시험 불안은 뇌의 감정 센터인 편도체를 과활성화해 고등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편도체 하이재킹' 현상을 초래한다. 뇌가 학습 불능 상태에 빠진 아이에게 학원 보충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과열된 엔진에 엑셀을 밟으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한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

술적 전제 조건이다. 부모는 아이의 전두엽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비난이 아닌 정서적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028 대입 개편안이 주는 논리적 기회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직면한 2028 대입 개편안은 과거와 다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1등급 비율이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이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뜻한다. 10퍼센트라는 넓은 문턱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로 충분히 만회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인지적 부채와 학습 주도권

시험 직후 철저한 분석 없이 다시 대형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는 행위는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간고사의 오답은 학습 체계의 결손 데이터이다. 이를 복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인지적 부채'를 다음 시험으로 이월하는 것과 같다.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학원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의 비율이 7대 3이었다면, 기말고사 대비에는 이를 3대 7로 역전시켜야 한다.

◆ 결손 데이터 복구 위한 과목별 분석 전략
기말고사의 성패는 중간고사의 실패를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어는 외부 지문 연계 선지 판단에

실패했다면 선지의 근거를 본문에서 역추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학에서 응용력 부족으로 확신했으나 틀린 문항이 있다면 이는 오개념이 고착된 지점이므로 최우선 교정 대상이다. 영어는 단순 암기를 넘어 문장 구조 분석과 유의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대비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와 과학은 도표 해석과 실험 원리의 인과관계를 구조화하는 백지 복습이 필수적이다.

◆ 학교생활 충실도와 과정 중심 평가의 입시적 가치

내신의 유일한 설계자는 교실의 교사이다. 수업 중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출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가장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고 학습법을 수정한 기록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훌륭한 '극복의 서사'가 된다. 점수는 기말에 복구하면 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간고사는 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정교한 진단 데이터라고 다짐하자. 실패의 경험을 공부 회복탄력성이라는 근육으로 승화시킨 학생만이 입시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을 수 있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금융업계의 '수수료' 갈등



기지 수집
안 재 선
(금융부)

수수료는 누군가의 수익이자, 누군가의 비용이다. 수익을 지키려는 측과 비용을 낮추려는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수수료 갈등이 업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카드사와 주유업계다. 주유업계는 최근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유가로 결제액이 커지면서 주유업계 카드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다.

카드사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유의 경우 결제금액이 확대될 경우 카드사 비

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 주유 결제액이 많아지면서 포인트·할인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수수료 갈등은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핀테크 업계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핀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 인하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수료 인하로 핀테크 업계가 위축되면 서민들의 자금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비용을 낮추려는 측과 수익을 지키려는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가 수익성 악화 속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카드사의 수익은 2조360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300억원 가량 줄었다.

저축은행 업권도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4168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익 대부분이 상위 1~2개사에 집중됐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매일수룩 '상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한다. 각 업권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갈등이 격화되면 사회 전체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역할도 불가피하다. 교통 분담을 업계에 맡긴 채 갈등을 방치해선 안된다. 상생이 가져오는 효용은 생각보다 크다.

/wojts4187@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언행을 조심하세요. 60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72년생 부귀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성적이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합격은 가능합니다.



49년생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61년생 시기가 길하지 않습니다. 7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50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2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세요. 74년생 마음 먹은대로 크게 이를 것입니다. 86년생 귀인의 도움이 오는 중입니다.



51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8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2년생 늘 배풀면서 살아주세요. 64년생 시험을 보았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6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88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53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77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89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54년생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지병이 있을 것입니다. 66년생 늦게라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78년생 괴로운 심경입니다. 90년생 귀인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손조roi 문제를 헤쳐 나갑니다. 67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79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6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92년생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구술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1년생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93년생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58년생 빌어도 소원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70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82년생 교통사고를 각별히 조심하세요. 94년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9년생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71년생 늘 단전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83년생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겁게 사세요. 95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삼재풀이

삼재나 삼살(三殺)들의 영향을 일부 역학자들은 무시하기도 하는데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생사 황색이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운이 관찰을 때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도 흉운이 오고 삼재가 겹치면 형, 충(刑, 冲; 형벌을 받고 부딪히는 오행)같은 흉한 기운이 자신이나 부모, 배우자 또는 자식 등 육친의 자리 어느 곳에서 작용 되는가에 따라 해당하는 가족이 사고나 흉액을 맞는다. 관광 버스가 빙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사람은 멀쩡하고, 어느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삼재가 들어도 잘못되는 일도 없이 무난히 지내는 사람도 있어서 삼재라는 것이 안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삼재 역시 개인차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사주팔자 구성이 원만한 경우라고 본다.

삼재 얘기가 나왔으니 삼재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사주명조라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본 따 소우주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氣), 즉 에너지 코드다. 나 개인의 에너지와 천지기운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좋은 기운과 내 것이 맞지 않는 기운이 오고 가는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삼재나 삼살을 응용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겨울이 오면 추위를 덜 탄다. 반대의 경우라면 겨울만 오면 갑절로 힘이 들고 몸도 컨디션이 저하되어 독감에 더 잘 걸린다. 그런 사람들은 겨울엔 따뜻한 동남야로 가서 추운 시기를 피하고 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까지 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전통적으로 삼재 방지 부적 또는 액운 방지 삼재풀이 의식을 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분야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6	
		4	3	2	
9					
1			8	9	
	9	2		8	4
		7	3		2
			9	1	7
8	1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7	2	9	1	2	8
9	8	2	2	1	6	8	7	9
7	1	2	8	9	8	6	2	9
2	9	9	1	6	8	2	8	7
1	7	8	9	2	9	2	6	8
8	2	6	8	7	2	9	9	1
2	2	7	9	9	1	8	8	6
8	6	9	8	8	7	9	1	2
9	8	1	6	8	2	7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